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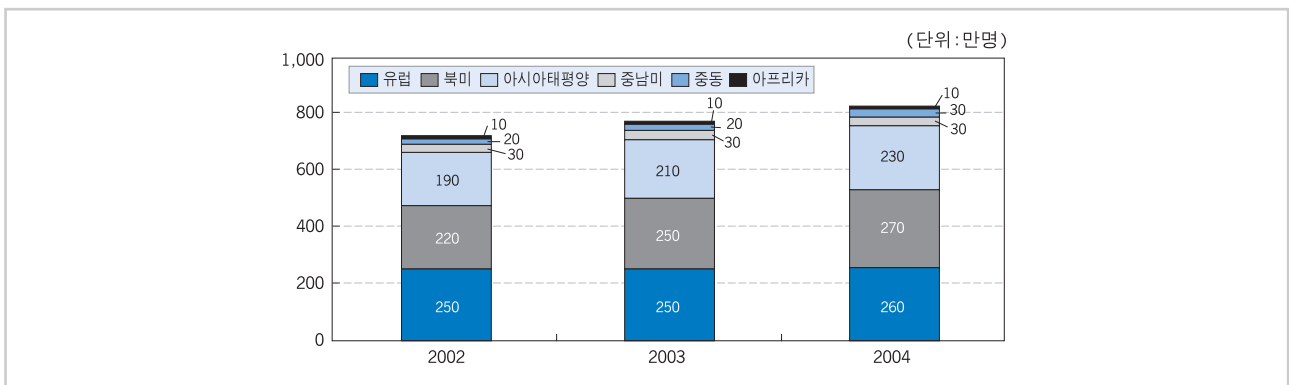


# 아시아지역의 부유층 금융자산 현황

최근 수년간 아시아 지역에서는 높은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100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이들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총액은 전년말 대비 9% 이상 증가한 7.2조달러로 집계되었음.

- 최근 수년 사이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높은 경제성장 등을 배경으로 중간층뿐만 아니라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 부유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글로벌금융서비스회사인 Capgemini의 World Wealth Report(2005)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230만명에 달하는 부유층이 태평양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럽(260만명)과 북미(270만명) 등에 필적하는 수준임.
- 일본의 부유층은 134만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고도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이 30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전년 대비 10.5% 증가한 7만 1,000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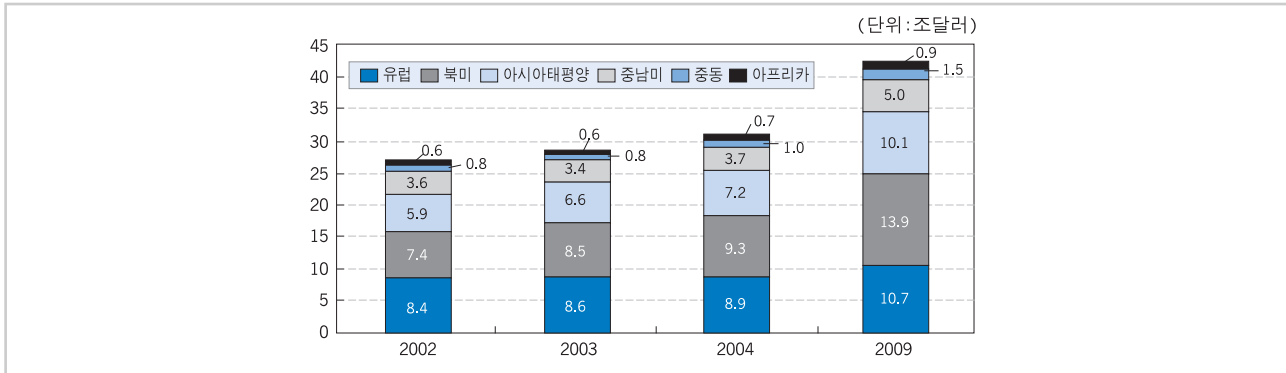
〈그림 1〉 세계 지역별 부유층 인구분포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총액은 2004년말 현재 7.2조달러로 집계되었으며, 2009년까지 연평균 6.9%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10.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동 기간중 유럽은 8.9조달러에서 10.7조달러로, 북미는 9.3조달러에서 13.9조달러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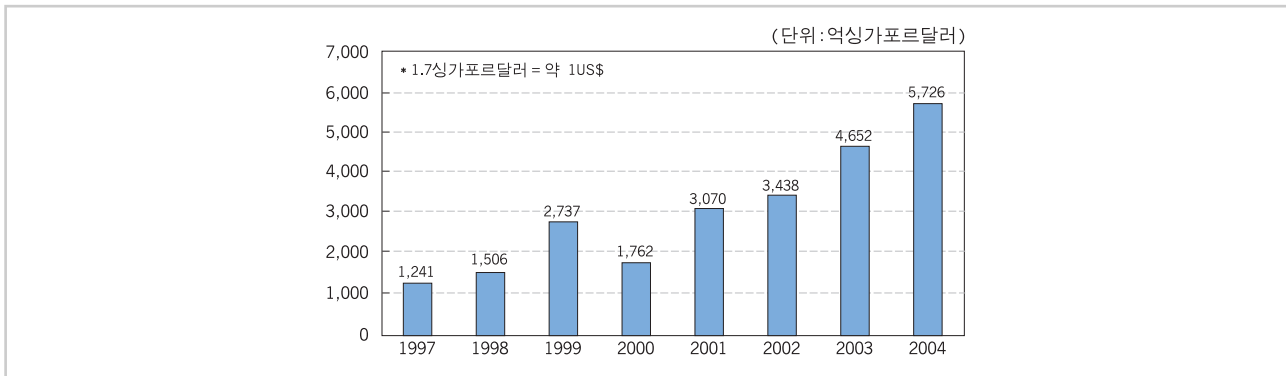
〈그림 2〉 세계 지역별 부유층 금융자산 현황 및 전망



■ 또한 아시아 지역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업무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주요 국제금융 센터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싱가포르 정부는 부유층 고객 확보를 위해 지난 1980년대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오고 있으며, 통화감독청(MAS)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운용자산 잔액은 포괄적인 금융부문 개혁프로그램이 공표되었던 지난 1998년 2월의 1,506억싱가포르달러에서 5,726억싱가포르달러까지 급증해 최근 6년 사이에 4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 싱가포르의 운용자산 잔액 추이



■ 한편 최근 각국마다 부유층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사례로서 평가받고 있는 대만은 금융자산 축척 및 규제환경 정비, 적극적인 대응자세 등이 성공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대만에서는 지난 2001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등을 계기로 다양한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는 체제가 정비되면서 Citigroup과 HSBC 등 외국계 금융기관은 물론 국내은행들이 신규 수익원 확보를 위해 부유층 마케팅 개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 이에 따라 2004년말 현재 개인금융자산은 명목GDP의 4.2배인 43조대만달러(32대만달러=약1US\$)에 달함.